



이 종 각
한국전자공업
회장

“包裝機쟁이”

포장기계쟁이가 만든 포장기계는 팔린다.

고사포일 제조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工人이라고 부른다. 이 명칭은 장사 商人, 농사일을 하는 農人(농부)과 구별하기 위하여 쓰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때 부터인지 모르지만 이 工人을 쟁이라고 부르며 천시해 왔다. 옛부터 내려오는 士, 農, 工, 商의 사상이 깊이 뿌리내려 ‘士’에 속하는 벼슬아치 無爲徒食하는 선비들이 생산은 하지 않고 소비만하는 계층이 만든 고약한 악습이다.

쟁이의 어원을 보면 匠人에서 비롯된 것이며 匠(장인장)을 풀어보면 斤은 도끼를, 匚은 상자를 뜻한다.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공작기계와 버어니어첼리퍼스를 가르킨다고 할 수 있다. 중세기 유럽에서 성행한 匠人의 徒弟制度는 얼마나 匠人되기가 어려운가를 말하고 있다. 오늘날 독일의 匠人인 마이스터(MEISTER)가 되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마이스터는 자부심도 대단하러니와 부러움의 대상이며 그의 작품에는 마이스터의 명예가 들어있고 그 마이스터의 혼이 들어있어 세계도처에서 살아숨쉬고 있다. 마이스터의 직종을 살펴보면 기계쟁이, 양철쟁이, 지붕쟁이, 목공쟁이, 수도쟁이, 전기쟁이, 난방쟁이, 구두쟁이, 유리쟁이 등 헤아리기 어려울 만치 많이 있다. 심지어 煙突을 청소하는 굴뚝쟁이도 있다. 이 쟁이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고 마이스터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대를 이은 쟁이도 많고 대를 이으려고 열심히 공부하여 마이스터 자격을 따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다. 중국문화권에 속하는 우리나라, 중국, 일본에서 전통공예품쟁이가 남아있는 것은 하나 그나마 쇠퇴일로에 있다. 21세기를 눈앞에둔 우리로서는 현대판 匠人이 모든 직종에서 견인차 역할을 하는 시기가 하루빨리 오기를 빌어본다.

工人과 匠人은 판이하게 다르다. 장인은 투철한 匠人정신이 있어야 하고 자기직업에 자부심이 있어야 하며 이 업종에서 1등만을 고집하고 2등되기를 거부한다. 匠人은 자기작품이 대중에 널리 애용되는 것을 원하며 1선에서 가동되는 것을 보

고 무한한 행복을 느낀다. 이러한 匠人이 그의 욕망을 채우려면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을 부를 수도 없고 판매후의 봉사도 또한 한치의 틀림이 있어서는 안된다. 자신이 제작한 기계에 있는 정성을 다바치고 자신의 영혼까지 그 속에 붙여넣는다. 그 기계쟁이는 그가 생산한 機器가 자신의 육체와 혼의 분신임을 자처하고 같이 명예를 나누며 운명을 같이한다.

이러한 포장기계쟁이가 제작한 포장기계를 거부하면 지구촌 어느 곳에서도 구입할 수 없다. 작금 포장기계생산업계에서 포장기기가 안팔린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아마도 이말을 하는 사람은 쟁이가 아니거나 아니면 포장기기의 위상이 우리 사회에서 있으나 마나한 미미한 존재일 것이다. 본 필자는 단연 후자에 속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인당 1천불 미만에서는 포장작업을 인력으로 할 수 있었으나 1천불을 넘어서면서 간이포장장치, 반자동식기기의 수요가 발생하고 3천불을 넘으면서 고가인 전자동식 포장기기가 필요하게 되어 그것을 구입 못하면 손해를 보게 되었다. 하물며 万불시대에는 노무비가 금값인데 어떻게 인력으로 뒷받침이 되겠는가?

그간 우리나라 화공품, 식료품생산업체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보면, 예를 들어 합성세제 小麥粉의 경우 1천불 미만시대에는 소포장을 할때 바가지 같은 용기로 퍼서 저울에 올려놓고 計斤하여 간이접착기로서 해결하였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점차 고가인 고급기기를 사용하게 되었다. 이 수준은 따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유일한 정답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기기가 인력 몇사람 분을 대체할 수 있는냐하는 것인데 많으면 많을 수록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도 응하였다. 오늘날 세계 여러나라에서 우리의 전철을 따라 앞서거나 뒤서거나 경쟁하고 있다. 그 나라마다 사정에 따라 간이, 반자동, 전자동의 여러 단계로 상응하는 기기가 필요하며 구입안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각 나라의 포장기계수요자들은 하나같이 쟁이생산품을 찾고 있으며 공인의 생산품을 외면한다는 사실이다. 마치 혼이 들어있지 않은 자동차를 타면 불안하고 잔고장이 많은 것 같이 공인이 만든 기기는 성능에 대한 의심, 고장에 대한 염려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포장기계제조업자가 혈안이 되어서 수요자를 찾고 있는 이상으로 실수요자층에서도 쟁이가 생산하는 機器를 찾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원래 장인정신은 금전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 다시말하면 쟁이는 돈으로 일일이 계산하여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독일의 어느 마이스터에서 볼수 있었다. 세계각지에서 밀려오는 주문을 처리하지 못하고 동분서주하는 모습은 우리에게는 한없는 부러움일 수 밖에 없다.

세계는 넓고 부국, 빈국 나라도 많고, 잘사는 사람, 중산층, 못사는 사람, 인구가 많고 포장기계를 사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요구하는 기계의 종류도 많다. 장인들은 25시간을 뛰어도 그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독일의 그 마이스터는 말하고 있다. 기능올림픽 메달리스트는 많으나 쟁이 찾기가 어려운 우리나라에서 우리도 대거 이 장인대열에 끼어야 하지 않겠는가?